

2004년, 본 재단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재도약! 2010 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포한 후, 어느 사이 2005년 한 해를 보내고 창립 6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 한 해, 한국여성재단은 21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인재를 육성하고, 여성단체들의 성평등사회조성 사업과 사각지대 소외여성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금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공헌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지원으로 다양한 지정기탁사업을 수행하여 약 4억6천여만원을 지원하였고, 한국여성기금의 과실로 지원되는 2006년 한국여성기금 공모사업을 통하여 성평등 사회조성사업과 여성복지사업에 총 345,490,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금모금보다는 직접지원사업을 위한 모금에 주력하여 점점 더 많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시의 적절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더 많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게 합니다. 한국여성기금의 과실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가 오히려 적어지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금운영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숙제로 남기게 됩니다.

한국여성재단과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오히려 많은 감동과 새로운 도약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복지의 사각지대의 가장 그늘진 곳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고 있는 여성노숙인들을 위한 국내 최초의 드림인센터인, ‘우리들의 좋은 집’ 이 (주)한화와 한화건설의 지원으로 여성노숙인들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쉼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왜곡된 美에 대한 도전으로 기획되었던 ‘빅우먼 패션쇼’를 통하여 여성들의 건강하고 당당한, 새로운 미의 기준을 천명하였습니다. 기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CJ홈쇼핑과 함께 2005년, 매달 진행한 ‘엄마에게 희망을’ 모금생방송은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의 의료비지원을 위한 기금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에 저소득 여성가장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알리고, 일시적인 기부가 아닌 성숙한 정기기부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삼성정밀유리의 지원으로 시작한 ‘새생명 새희망! 불임치료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가족보건복지협회가 함께 참여하여 저소득 불임여성들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시험관 시술비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민관이 공동으로 불임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하게 되는 시범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바람직한 모델로 저소득층 여성 가장들이 전문 해

어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박승철 헤어 스튜디오'에서는 교육과 창업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교보생명은 '짧은 여행, 긴 호흡' 사업의 지원과 더불어 여성공익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Technical Assistance)사업을 지원하여 향후, 여성활동가들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지원에 다가서도록 해주었습니다.

*여성공익활동가 장학금*

2004년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하여 조성된 '새날기금'으로 글로벌여성리더십을 육성하기 위한 환경, 노동, 평화, 농민, 인권 등 총 5개 사업 분야에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 '100인 기부 릴레이'를 통하여 조성된 '행복한 가족기금'은 2006년 다양한 가족을 존중하고 소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4년 본 재단의 5주년 창립제에서 발족된 '(사)미래포럼'은 2005년 한해, 6회의 공개포럼을 개최하여 사회적 의제들에 대한 깊은 토론을 통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사회공헌사업의 구체적인 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기업과 NGO가, 민과 관이 함께 협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2005년 한해에도, 우리 사회에는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를 걱정하고,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 각 계, 각 층에서 각각의 대안을 찾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에 골몰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여성재단 또한 현재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안에 응답하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듯, 인구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새기고 일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원과 관심과 노력 또한 절반만큼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거들나기 위하여 노력하는 건강한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활성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천원을 만원처럼,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실어 기적을 만들어내며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일하는 여성공익활동가들이 있기에 한국여성재단은 힘차게 내일을 기획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2005년 함께 꿈을 키우고, 열심히 전진해주신 여성공익활동가들과 우리의 걸음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